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3년 4·5월 제 **127**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 정순택 대주교, 선우 선생 15주기 맞아 요셉대축일 미사 집전 신완식·고영초 병원장 이·취임식도 함께 거행



성 요셉 대축일을 이틀 앞둔 지난 3월 17일 오후 본 재단은 3층 경당에서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요셉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요셉의원 병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경춘 이사장 주교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를 비롯한 재단 이사진과, 교구 사제 및 수도자, 본원 의료봉사자,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선우경식 선생

3월 17일 오후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 거행된 요셉대축일 미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강복하는 정순택 대주교(가운데)와 사제단. 사진 아래는 신임 고영초 원장(왼쪽)과 퇴임하는 신완식 원장.

의 영명축일이기도 한 오늘, 요셉 대축일 전례로 선우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과 신앙을 기릴 수 있게 돼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샤를르 드 푸코 성인의

영성을 따르는 예수님의 작은 형제회 재속회원으로 20여 년간 활동했던 선우 선생의 삶은 곧 푸코 성인의 삶과 정신을 떠오르게 한다”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선우 선생의 형제애를 되새겼다.

127호  
주요  
소식



요셉대축일 미사

1



고영초 신임원장 인터뷰

5



신완식 전임원장 인터뷰

8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8



국교회 소식

21



정 대주교는 지난해 11월 12일 명동성당에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에 대한 두 번째 기림미사(첫 번째는 안중근 의사)로 선우 선생 기림미사를 봉헌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우 선생을 추모한 바 있다.

### “선우 선생 뒤이어 15년 동안 헌신한 신완식 원장께 감사”

이날 미사에 이어 거행된 요셉의원 병원장 이·취임식은 재단 유경춘 이사장 주교의 인사말로 시작해 ▲퇴임하는 신완식 원장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과 약력 소개 ▲공로패 수여 및 퇴임사와 함께, ▲신임 고영초 원장의 활동 영상 상영과 약력 소개 ▲임명장 수여 및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경춘 주교는 인사말에서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의 20



병원장 이취임식 후 정순택 대주교와 함께. 사진 왼쪽부터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 퇴임하는 신완식 원장,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요셉나눔재단 유경춘 이사장 주교, 신임 고영초 원장.

여 년에 걸친 헌신에 뒤이어 신완식 원장님께서 15년 동안 의무원장으로 그리고 병원장으로 헌신해주신 덕분에 오늘

### 정순택 대주교 선우선생 15주기 요셉대축일 미사 강론

## ‘그리스도를 섬기듯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신 선우 선생님’

샤를르 드 푸코의 정신을 그 성인처럼 사셨던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의 숭고한 뜻과 깊은 신앙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폭넓게 펼쳐나가는데 요셉의원이 큰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 역할을 계속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우경식 선생님의 영명축일이기도 한 요셉 대축일 전례로 선우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과 신앙을 기릴 수 있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봉사자 여러분과 후원회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매년 봄 가을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의 기림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12 일에는 두 번째로 선우 경식 선생님을 기리는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선우 경식 선생님께서 생전에 약 20여 년간을



재속회원으로 활동하셨던 예수의 작은 형제회 설립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고, 또 작년 5월에 시성되신 샤를르 드 푸코 성인의 말씀으로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푸코 성인께서 자신의 사촌에게 쓰신 편지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에 첫 번째 자리를 내주시고,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또 사랑의 영감을 받은 희생에 자리를 내주십니다.’

이 표현을 묵상할 때 하느님의 깊은 사랑과 겸손에 놀라게 되고, 이런 통찰을 하신 푸코 성인의 깊은 영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작년 5월에 푸코 성인을 시성하신 뒤 샤를르 드 푸코 영적 가족 협회원들을 만나신 자



까지 요셉의원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고 치하하고, “신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 노고가 하느님의 축복으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는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유 주교는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실 고영초 신임 병원장님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한 때 사제가 되려 했던 고 원장님의 숭고한 뜻이 의대 진학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많은 봉사로 표출되었듯, 그 인술이 이제 요셉의원에서 열매 맺게 되리라 기대하고, 기도로서 함께 응원하겠다”고 축하했다.

### ‘36년 간 네 명의 상근 무급 봉사의가 요셉의원 진료실 지켜’

요셉의원은 1987년 8월 개원 이래 선우 경식 초대원장에 이어 세 분의 의사가 뒤를 이어가며 의료 부문을 이끌어왔다. 선우 선생이 2008년 4월



‘사막의 은수자’로 알려진 생전의 샤를르 드 푸코 성인 모습.

리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샤를르 드 푸코 성인은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을 살아내며 선량한 사도직을 실천하셨습니다.’

푸코 성인의 영성을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의 작은 형제회 재속회원으로 계셨던 선우 선생님의 모습은 이 푸코 성인을 많이 떠오르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길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바치신 선우 경식 선생님이야말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신 분이시고, 가난한 환자들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평생을 그분들 안의 그리스도를 섬기시듯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이 1987년 8월 가장 어려운 동네에 개원할 무렵, 주변 많은 분들이 좋은 일에 감탄을 하면서도 석 달 혹은 여섯 달을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의원이 당시 재개발로 인해 1997년 지금의 이 자리로 이전하였고 지금껏 36년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하여 17개 분야의 무료 진료뿐 아니라 어려운 분들의 먹거

선종한 뒤 최영아 선생(내과)이 1대 의무원장으로 7개월 여를 봉사했고, 이어 가톨릭의대 교수직을 명예퇴임한 신완식 박사가 2009년 3월부터 제2대 의무원장으로, 그리고 지난해 7월 4일 요셉나눔재단법인이 출범하면서부터는 제4대 병원장으로 보직명이 바뀌며 올해 3월 말까지 15년 동안 헌신해 왔다.

이번에 취임한 제5대 고영초 병원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36년 동안 요셉의원은 진료부문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던’ 초창기 선우 원장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다. 돈이 없어 웬만한 의료기기는 성모병원에서 교체 대상으로 내놓은 기기 일부를 가져다 쓰거나, 다른 병원에서 기증한 중고 기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다 1997년 지금의 영등포 병원 자리로 이전하면서는 단독 건물을 3층까지 쓰게 돼 진료실도

리와 생필품, 좀 전에 1층에서 봤습니다만 옷가지나 신발같은 필요한 물품도 사랑으로 나누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샤를르 드 푸코의 정신을 성인처럼 사셨던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의 그 숭고한 뜻과 깊은 신앙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우리 사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욱 폭넓게 펼쳐나가는데 요셉의원이 큰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도 큰 역할을 계속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우 경식 선생님의 모범을 따라 요셉의원 2대 의무원장이자 4대 병원장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헌신해오신 신완식 루카 선생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뒤이어 있을 병원장 이취임식에서 새 병원장으로 취임하실 고영초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선생님의 길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늘 풍성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 대축일 미사를 요셉의원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순택 대주교는 이날 요셉의원 병원장 이취임식에서 퇴임하는 신완식 원장에게 '15년 간 의무원장과 병원장으로 진료와 의료행정 책임을 맡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큰 사랑을 실천한 뜻을 높이 기려' 공로패를 수여했다(사진 왼쪽). 이어 유경춘 요셉나눔재단 이사장 주교는 4월 1일자로 요셉의원 병원장으로 취임하는 신임 고영초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러 개 확보하고, 몇 년 뒤 외부 지원으로 컴퓨터 시스템도 교체할 수 있었다.

의료기기와 시설은 큰 병원에 비해 부족했으나, 20개 가까운 진료과에 대학병원 교수나 개원 전문의 등 수준급의 의료진이 자원 봉사를 나와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선우 원장은 '가난한 환자들의 자활을 위해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설립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6년 8월에 알코올 의존증 재활센터인 '목동의 집'을



본원 경당에서 치러진 요셉대축일 미사와 병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외부 및 병원 직원과 신학생(사진 위와 아래 왼쪽). 사진 아래 오른쪽은 미사 반주를 맡은 황지혜 봉사자.

개설하고, 2000년 10월에는 영등포에 무의탁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인 '성모 자현의 집'을 열기도 했다.

### 신 원장, 진료 체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높여

대학교수 출신인 신완식 원장 부임 이후에는 전산화된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감염내과분야 권위자였던 신 원장은 "부임 후 무엇보다 환자들이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에 일회용 종이수건을 비치토록 한 것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말하곤 한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혈액이나 소변검사 등 각종 검사의 정도(精度)관리도 중요한데, 신 원장은 이를 위해 임상검사실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검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선우 원장 시절에는 비용 절약이 특히 큰 과제였던 만큼 쓰고 버리는 이면지를 환자 처방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 투약 관리나 의료정보 관리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신 의무원장 부임 후 '의사랑' 처방전달시스템을 설치했고, 몇몇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초음파 진단 장비 등 각종 의료기기와 치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실, 약제실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왔다.

신 원장의 지도 아래 의료장비 개선, 환자 예약제 시행, 수술이나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상급 병원 전원 체제 다각화 등으로 본원 의료서비스는 한층 향상됐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3년 가까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진료 제



한과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신 원장은 “처음 요셉의원에 와서 적응하느라 고생한 이래, 코로나 때문에 봉사하시는 선생님의 거취나 환자 동향이 불확실해 가장 힘들었다”며, “지금도 재개발과 요셉의원 이전 문제, 목적 사업의 확충 등 당면한 문제가 가로놓여있으나 능력이 출중하신 신임 고영초 원장님이 잘 해내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 “전임 원장님이 다지신 바탕 위에서 선우 선생의 뜻 새롭게 펼칠 터”

올해 들어 본원을 찾는 환자 수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한 고영초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본원 초창기부터 진료에 참여해온 봉사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요셉의원 봉사에 앞서 1977년부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시흥 전진상 의원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외국인 진료소인 라파엘 클리닉에서도 진료봉사를 하고 있다.

전임 신완식 원장 때는 의료체계 확립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서 발전이 있었다면, 병원 안팎으로 여러 현안이 걸려있는 신임 고영초 원장 때는 좀 더 보폭이 큰 변화

가 예상된다. 우선 병원 내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완전 전산화가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동안 써왔던 종이 의무기록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약 처방과 병원 안팎에서의 진단 영상 판독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본원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영등포 이외 지역의 노숙인 등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종의 간이 출장 진료소를 개설해 평소 의료시설 접근이 어렵거나 꺼리는 노숙인과 행려자 등에게 의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 산하 해외 의료지원사업 부문에서도 가난한 나라의 의료사각지대 빈민들을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지원도 점차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 원장은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님을 비롯해 요셉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하느님의 보살핌이 요셉의원과 함께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신 원장님이 이루신 바탕 위에서 선우 원장님의 뜻을 잘 펼쳐서 가난한 환자분들에게 다각도로 최선의 진료를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 인터뷰 & 취임사 고영초 신임 원장

## “저의 50년 의료봉사, 요셉의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취임식을 가진 뒤 4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신임 고영초 원장은 매주 월~화, 목~금 나흘간 낮진료에 나서고 있다. 4월 18일에는 선우 선생 15주기를 맞아 경기도 양주군 울대리 묘소 연도 행사에 함께하는 등 병원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 원장으로부터 본원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부임하신 지 한 달 가량 되셨는데, 병원 시설이나 환자 분포 등의 면에서 대학병원에 계실 때와는 다른 점이 많지요?

“대학병원에서는 제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수술받기 위해서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와, 신경과나 내과에서 진단 후 의뢰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후 경과를 보는 일이 거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요셉의원에서는 뇌수술할 환자는 없고 거의 허리통증, 다리저림, 어지럼증, 두통같이 약물 치료할 환자들을 보고 있고, 원장으로서 결재를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네요.”



### -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그동안 대학병원에서는 어느 분야를 주로 진료하셨나요?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을 많이 했지요. 수술이 곤란한 부위에 발생한 종양이나 수술로 다 제거하지 못한 경우 감마나이프 등 첨단 수술 보조 기기를 이용해 지난 38년 간 약 3000여 명의 뇌종양 환자를 치료했지요. 또한 1977년부터 46년 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봉사를 해오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내과 질환 환자도 진료한 경험이 많아서 이곳 요셉의원 내과 환자 진료에도 잘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36년 간 요셉의원에서 신경외과 진료 봉사를 해오면서 파킨슨병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진료했듯이 이런 질환들도 함께 치료할 계획입니다.”

### - 그동안 의료봉사를 계속하셨던 전진상 의원이나 라파엘 진료소에 비해 요셉의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진상 의원이나 라파엘 클리닉에 비해 요셉의원에 오는 환자들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이며 병원의 위치도 영등포 쪽방촌 한가운데에 있어, 봉사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 - 선우 경식 초대 원장님은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이념을 내거셨는데, 이런 환자 재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기서의 재활은 주로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재활이나, 정신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정순택 대주교와 자리를 함께한 요셉나눔재단 이사진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고영초 이사, 홍근표 상임이사, 정순택 대주교, 유경춘 이사장 주교, 신완식 이사. 뒷줄 왼쪽 두 번째부터 권이상, 이상수, 박철휘 이사, 김한석 감사, 박찬순, 김익석 이사.

있도록 돕는 일로, 그동안 목동의 집에서 소규모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 일은 현재 병원이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방안을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 - 앞으로 요셉의원의 운영 및 대외 활동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현재 약 120여 명의 의료봉사자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낮 진료 시간에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의 분야에 더 많은 진료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늦은 밤 시간에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가정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 봉사 인원이 늘어난다면 병원에도 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방법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

## 취 임 사

### “하느님께서 주신 소임 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순택 대주교님, 유경춘 주교님,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님, 신완식 원장님을 비롯한 요셉나눔재단 이사님들, 봉사자님들과 후원회원님들, 그리고 귀빈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사제가 되는 것이어서 중고등학교 5년을 소신 학교에서 생활하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일반 학교로 편입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렸다는 미안함으로 시작했던 의료봉사 활동이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라고 저를 이 막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요셉의원에 봉사자로 36년째 나오고 있는 제게 38년 간의 교수직을 마치자, 새로운 소임을 주신 것에 대해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초대 선우경식 원장님의 선종 이후 요셉의원 혼란기에, 6년 남짓 남은 교수직을 과감히 던지고 요셉의원의 2대 의무원장으로서 지난 15년간 성공적으로 우리 병원을 이끌어 오신 신완식 원장님의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선우경식 원장님께서 신림 시장 안 허름한 건물 2층에서 요셉의원 간판을 내걸었던 1987년 9월 말에 원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뒤 오랫동안 봉사자로 지내던 중 2006년 5월 초, 선우 원장님께서 갑자기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자칫 치료가 늦어지면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의 신경장애가 올 수도 있었으나,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건국대병원에서 신속한 검사와 스텐트 삽입술과 혈전용해술을 통해 원장님께서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단순한 봉사자에서 원장님의 주치의가 되었다는 기쁨에 요셉의원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임종하시기 며칠 전인 2008년 4월 둘째 주 어느 날 새벽 2시 경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라는 선우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선우 원장님은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성모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달 전 필리핀 요셉의원 개원 10주년 행사에 참석차 마닐라 근교 말라본 시에 가서 최영식 신부님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하신 최영식 신부님은 소신학교 3년 선배로 1965년부터 3년 동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그리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원의 원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저는 저와의 인연이 작지 않은 선우 경식 원장님과 최영식 신부님 두 분께서 닦아놓은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었습니다.

요셉의원 안팎으로 여러 난제가 가로놓여있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주교님과 주교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시는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과 요셉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도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약 력

### 학 력

1977년 2월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1979년 2월  
서울대학교 의대 석사

1987년 2월  
서울대학교 의대 박사



2021년 5월 LG 의인상을 수상한  
고영초 요셉의원 신임 원장

### 근무 경력

1985.05 ~ 1998.0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교수

1998.05 ~ 2005.02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교수

2005.03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

2012.04 ~ 2014.02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학장

### 정년 퇴임

2018.02  
정년 퇴임

2018.03 ~ 2023.02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자문교수

### 봉사 경력

1973.03 ~ 1977.02  
가톨릭학생회 주말/하계/동계 진료봉사

1974.08 ~ 1975.08  
서울대의대 가톨릭학생회 회장으로 활동

난곡지역 주말 진료 시작

### 1977 ~ 1982

전진상 의원 주말 진료

### 1985 ~ 현재

전진상 의원 주중 진료

### 1987 ~ 현재

요셉의원 개원 때부터 주중 진료

### 1997 ~ 현재

라파엘 클리닉 주말 진료

### 수상 경력

2007. 04  
23회 보령의학봉사상

2012. 07  
국민추천 대통령 포상

2014. 12  
11회 장기려 의도상

2021. 05  
LG 의인상

인터뷰 & 퇴임사 **신완식** 전임 원장

## “몸 움직일 수 있는 한 요셉의원 봉사 계속해야지요”



초대 선우 경식 원장 이후 제2의 ‘영등포 슈바이처’로 불리며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신완식 전임 원장은 퇴임 이후에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씩 무료 진료에 임하고 있다. 직위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뜻했던 길을 힘 달는 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 퇴임과 관련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 요셉의원에서 일하시면서 의사로서 새롭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처음 여기 올 때 정진석 추기경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요셉의원에서는 교수 시절의 학구적 진료보다는 전인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교수로서의 권위를 버리고 환자와 인간적인 교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곳 환자들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꼽으신다면?

“위의 답변과 연결되는데, 환자분 이름에 ‘○○○님’, 선생님 등의 호칭과 존칭을 써서 인간적으로 대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항상 무시당하고 냉대만 받고 산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게 되고, 때로는 감격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본

원 사회사업실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수급도 받게 된 분에게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도 된다고 해도 요셉의원 이 더 마음이 편하다며 계속 치료받게 해 달라는 말도 합니다. 전인적 치료와 돌봄의 성과라고 할까요.”

– 아무래도 진료와 관련해 아쉬웠던 점도 있으셨지요?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외롭게 사는 노숙인들은 더욱 위축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도 쉽지 않아서 힘들었고, 노숙인들의 재화와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수 없어 많이 아쉬웠지요. 또한 가능하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는 현재의 진료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이 크고, 요셉의원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 노숙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길거리에서 술 먹고 주정하는 이들은 일부이고, 쪽방촌과 고시촌, PC방 등을 전전하는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못 따라주니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소외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지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여름 신완식 전 의무원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외톨이지만 누군가의 가족인 만큼 단순한 생생의 대상이기에 앞서 파스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시스템이 절실하고요.”

### -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마음가짐을 갖춰야 할까요?

“흔히 봉사를 하려면 체력과 시간 여유, 다소간의 경제적 여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인가의 시에서 ‘혼자서 행복하면 뭐하나?’하는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었보다 중요하지요. 봉사를 직접 해본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 - 앞으로 요셉의원이 나아갈 방향이랄까 요셉 가족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꼭 요셉의원만이 아니라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무슨 일 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선의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결정에는 선우 선생님의 뜻이 담긴 요셉의원의 이념과 사명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의료봉사자들이 정순택 대주교, 유경춘 주교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김정식 선생(치과), 신완식 전임 원장, 정순택 대주교, 유경춘 주교, 김종승 선생(내과), 사진 위 왼쪽부터 고영초 신임 원장,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이충규 선생(치과), 박철휘 교수(내과).

신 원장은 본원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 암으로 고생하던 부인을 잃고, 이듬해 4월에는 본인도 식도암 판정을 받아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환자 진료를 위해 출근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금도 건강이 썩 좋은 편은 아니나, 요셉의원 봉사는 계속할 생각이다.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지요.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봉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 퇴임사

### “15년 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요셉의원에 오게 된 데는 당시 가톨릭의료원 최영식 원장신부님이, 요셉의원을 이끌어오시던 선우 경식 선생님께서 선종하셨으니 요셉의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교수직에만 있다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임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만연할 때였지요. 환자들도 그렇고 또 봉사 나오시는 분들도 전처럼 나오실 수가 없어서 무척 난감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일 때는 감염 위험 때문에 요셉의원이 휴진도 했었는데, 그래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대부분 비대면 진료를 했지만 우리는 환자와 얼굴을 맞대고 대면 진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봉사하시는 선생님도 거의 안 계신 마당이어서 김승남 선생님 하고 저하고 꺾끗이 버텨나가기로 했지요. 주님이 그걸 허락해 주셔서 힘들었지만 별 문제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요셉의원은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전 문제라든지 목적 사업의 확충 같은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시는 고영초 선생님은 오랫동안 많은 준비가 있으셨던 분이기에 때문에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뭔가를 협력해서 이뤄나가  
는 건 오케스트라가 극명하  
게 나타내줍니다. 전에는 시간  
이 없어 못 가다가 요새는 가  
끔 오케스트라 연주회장에도  
가보는데, 거기서 보면 예상  
치 못한 불협화음이 살짝 새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은 연주자와 지휘자가 잘 소통  
하면 해결이 되듯이, 요셉의원



역시 이런 소통을 잘 하셔서 나  
날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  
다. 15년 간 재임하는 동안 요셉  
의원에 몸담으셨던 신부님과 수  
녀님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셔서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원 가족 여  
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약 력

### 학력

1977년

가톨릭대 의과대학 졸업

1987년~1988년

Research fellow of Wadsworth  
Hospital Center & UCLA

1990년

가톨릭대 의과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 근무 경력

2000~2002

보건복지부 항생제·항암제  
분과위원회 위원장

2002~2004

대한감염학회 회장,  
대한의진균학회 부회장

2004~2006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회장

2006~2008

대한면역저하환자감염학회 회장

2007~2009

가톨릭세포치료사업 단장 및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

2009. 2월

가톨릭대 의대 교수 명예퇴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2009~현재

한국가톨릭의료협회(CHAK)  
해외의료봉사위원회 위원장

2009~2023. 3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병원장

### 봉사 경력

몽골 의료봉사 약 10여회,  
필리핀 의료봉사 약 20여회,  
잠비아, 캄보디아, 네팔 등  
해외 의료봉사 다수

### 수상 경력

1999

서울시의사회 유한의학상

2002

가톨릭의과대학 우수교원상

2003

송촌 지석영 GSK의학상

200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제55970호)

2009

국무총리 표창장 (제152852호)

2010

올해의 의사상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동문회)

2014

제12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  
인상

2014

보령 의료봉사상

2018

JW (중외학술복지재단)  
성천상 수상

2019

자랑스런 경북인상  
(경북고 동문회)

### 수상 실적(요셉의원)

2012

우정선행상 대상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

2016

세종문화상  
(국제협력 및 봉사 부분  
대통령포상)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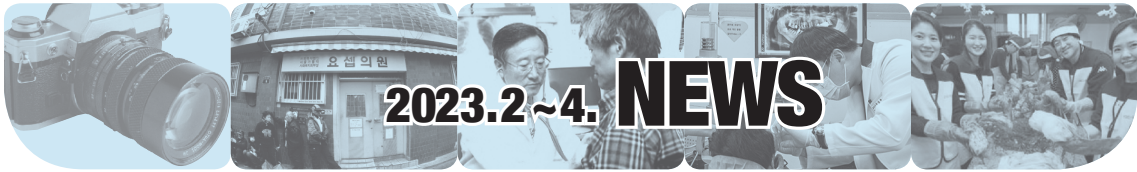
제28회 아산복지재단 아산대상

2018

제6회 이원길 가톨릭인본주의상



2018년 7월 성천상 수상 후 이종호 중외학  
술복지재단 이사장(왼쪽)과 함께.



## 2023.2~4. NEWS

### 선우 경식 선생 15주기 맞아 연도와 미사 봉헌

“선우 선생의 뜻 잇기 위한 기념사업 본격 추진”

본원 초대원장  
선우 경식 선생 15  
주기를 맞은 4월  
18일 오전 재단 홍  
근표 사무총장 신  
부와 고영초 병원  
장을 비롯한 임직  
원 13명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  
대리 길음동성당



선우 경식 초대원장 15주기를 맞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길음동성당 묘원의 선우 선생 묘소 앞에서 연도를 올리고 있는 본원 임직원들.

께서 기림미사 봉  
헌을 통해 선우  
선생님의 존재 의  
미를 새롭게 부각  
해주셔서 선우 선  
생을 기억하는 모  
든 분들에게 매우  
뜻깊은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묘원의 선우 선생 묘소를 찾아 연도를 올리고 고인을 추모했다.

지난 3월 17일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선우 선생 묘소를 찾은 고영초 원장은 “선우 선생님 묘소 앞에서 연도를 올리면서 선종 며칠 전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직접 처치를 한 뒤 서울성모 병원으로 보내드릴 때의 장면이 새삼 떠올랐다”고 회고하고, “선생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요셉의원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이날 오후 본원 경당에서 봉헌한 추모미사 강론에서 “선우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념사업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다행히 지난해 11월 정순택 교구장님

홍 사무총장 신부는 이어 현재 이충렬 작가가 집필 중인 선우 선생 전기에 올해 성탄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하고, 기념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선우 선생의 영성적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작업의 필요성, 초기 요셉의원을 설립할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선우 선생님이 무료 진료를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몇 달 못갈 것이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36년간 흔들리지 않고 자선 의료 외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하느님이 이 일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병원 설립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과 영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



선우 선생 기일인 4월 18일 오후에는 본원 경당에서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의 집전으로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 수 년 만에 본원 세례성사 실시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됐던 본원 교리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되면서 수 년 만에 첫 영세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지난 6개월 동안 본원 황보 신이 원목실장 수녀와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로부터 교리를 배운 정유섭 씨(세례명 미카엘, 본지 115호 봉사자코너 소개).

정 씨는 본원 건너편 쪽방촌에 거주하는 봉사자로, 이태구 1층 안내담당자는 “유섭 씨가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들러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시설 보수, 청소 등을 도와주고, 특히 무리한 행동이나 요구를 하는 환자들을 잘 달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대부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례식에는 정 씨가 배식 봉사에 참여하는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 박경옥 총무와 봉사자 2명도 참석해 함께 축하해주었다.

현재 영등포성당에 교적을 두고 본원 평



새 세례자인 정유섭(미카엘, 사진 왼쪽) 씨와 대부 이태구(미카엘) 씨가 세례성사를 베푼 홍근표 신부와 함께.

일 미사에 매일 참석하는 정 씨는 “아직 미숙한 신심을 매일 미사를 드리며 열심히 가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의료정보시스템 (OCS/EMR) 마무리 작업

본원은 그동안 일부 보류되었던 의료정보 시스템 완전 구축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시행업체 두 곳(이원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



올 상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통합의료 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책장에 보관하는 종이 의무기록지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

케어)과 계약을 맺고 4월 중순부터 서버 등의 필요한 하드웨어를 새로 설치하고, 각 진료실과 의무기록실, 약제실, 영상의학실 등 관련 부서의 해당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구축 작업은 5월 초에 완료돼 한 달 정도 시험 가동을 한 뒤 6

월부터 실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방전달 시스템(OCS)과 전자의무 기록시스템(EMR) 등을 일 반 중규모 병원급으로 완전 교체함에 따라 환자 진료 때마다 1층 의무기록실에 비치된 개인별 의무기록지를 2,3층 진료실로 올려주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환자별 질병별 의료데이터 분석과, 필요시 X선이나 초음파 촬영 영상 등을 외부에서도 손쉽게 판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게 됐다. +

## 신규 직원 6명에게 성목요일 세족례 베풀어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4월 6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에서 입사 1~2년 차 남녀 신규 직원 6명(홍석만, 이상선, 한진희, 조영이, 신혜림, 손지원)에게 세족례를 베풀었다.

이날 세족례에서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와 황보 신이 원목실장 수녀는 여성 직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세족례는 예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어 당신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의 행위로서, 봉사받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4월 6일 성목요일에 본원 경당에서 실시된 세족례에서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가 직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





## 꼭방촌 향기

# “아들 칭찬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칭찬에 멧쩍기도 했지만 더 부끄럽더군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솟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 너머 하늘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나 오늘 잘 했나???”



이제 8년 남짓한 자원 봉사를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니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네요.

처음 요셉의원을 알게 된 것은, 8년 전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에 재직하는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3주차 자원봉사를 좀 해 주었으면 하더군요. 한마디에 “O.K~!”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 한편으로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아, 괜히 한다고 했나?”하는 불편한 마음에 몇 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달 하다가 핑계 거리 만들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하더군요.

드디어 처음 봉사 하는 날, 이문주 원장신부님이 반갑게 맞아 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인데 잘 할 수 있을지 두렵네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해주세요.”

신부님의 말을 들으니, 힘이 나더군요. 병원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 치료하다 보니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괜시리 걱정했구나”하는 생각이 들 때 책상 앞을 보니 선우 경식 원장님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에게 무료



전정재

본원 물리치료 봉사자



진료’ 요셉의원의 이념과 사명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이제껏 나랑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고 전화했습니다.

2018년 명동성당에서 열린 선우 원장님 10주기 추모 음악회에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원 관계자분들이랑 봉사자님들의 환대에 아들은 놀라더군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네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아들의 말에, “아니 머 별거 아닌데...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더 많아, 아버지는 고작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아들의 칭찬에 멧쩍기도 했지만 더 부끄럽더군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솟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 너머 하늘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나 오늘 잘 했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40) 아멘. +



## 봉사자 코너

### 최근 튀르키예 지진 현장 찾아 인술 편 **최성욱** 봉사의

#### “의술 필요한 곳에서의 봉사는 서로에게 행복”



튀르키예 지진 현장 임시 아외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최성욱 봉사의.

성남시 중원구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욱 봉사의(아이엠 정형외과 원장)는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때면 서둘러 병원 진료를 끝내고, 길게는 2시간 넘게 걸려서 본원에 봉사를 나온다. 입원실까지 두고 있는 개원의로서 본인 환자 돌보기도 힘든데 굳이 시간을 쪼개 무료 봉사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외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진료하는데, 가난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건 서로가 행복한 일이지요.”

최 봉사의는 2019년 7월 엄홍길휴먼재단 DMZ 대학생 국토대장정에 의료진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의사들과 본원 김정순 의무기록팀장으로부터 요셉의원 얘기를 듣고, 그 해 10월부터 본원 의료봉사진에 합류했다. 정형외과 수술을 주로 하다 보니 그동안 수술이 필요한 이곳 환자 몇 명도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해 주기도 했다.

“한 분은 무릎에 혹이 있는 분이었는데, 협력병원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혹을 제거해드렸고, 지난해에는 팔꿈치가 골절됐는데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문제가 된 젊은 남자를 수술해 드려 못 쓰던 팔꿈치를 잘 쓰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좀 더 잘 도와드릴 텐데 떨어져 환자분들이 오시기도 그렇고, 최근까지는 코로

나 때문에 제한사항도 있었지요.”

최 봉사의는 본원에서 진료할 때 정형외과 투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분량만 처방하고 있다.

“일단 정형외과 약은 장기간 먹는 약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과 약처럼 많이 처방해 달라는 환자분들에게는, 후원금으로 구입하는 약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처방받아 가면 다른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 할 약이 적어질 수 있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중복으로 약을 받아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갖고만 있으면 유통기한도 지나가 버리니까 필요한 양만 받아가고, 최대한 약을 줄이는 게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해 드립니다.”

의대 재학 시절부터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최 봉사의는 부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봉사팀이나 엄홍길 재단, 지구촌나눔운동의 해외의료봉사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가족 해외여행 대신 의료봉사를 택했다고 할까.

최 봉사의는 “2015년쯤인가 서울아산병원 필리핀 의료봉사에 처음 간 뒤 시간상 부부가 같이 가기는 힘들어 교대로 참여했다”며,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2020년까지 1년에 한두 번은 명절을 낀 긴 연휴 때 아내와 교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 라오스,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팔 등지로 의료봉사를 갔었고, 2019년에는 가족이 모두 네팔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엄홍길 재단에서 학교를 세워준 네팔의 오지 푸름부 마을 봉사는 2박3일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하루 반박에 진료를 못했지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

“워낙 오지인지라 의사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고, 하루 종일 걸려서 학교 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엄홍길 재단에서 이 오지 마을에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고, 특히 현지 교장선생님과 이장님 등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감사장 액자까지 만들어주려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만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이스켄데룬 지역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3월 16일 귀국했다. 튀르키예 봉사에는 미국에서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남도 봄방학을 맞아 참석해 부자가 함께 국위를 ‘선양’





했다. 봉사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은 영어로 통역 및 환자 안내 등 진료를 보조하며 나름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최 봉사의가 이번에 참여한 의료캠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달려온 25명 정도의 의료진이 큰 텐트로 만든 야전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이후 새로 참여한 다른 의료진들에게 인계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생각보다 한국말을 하는 튀르키예인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한국 포항제철이나 어느 어느 회사에서 일했다며 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전



최 봉사의는 의료봉사 때 남을 돕는다는 자세보다 직업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고, 상당수 환자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라 나중에는 몸이 아픈 것보다 오히려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주거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 봉사의는 이같은 국내외 의료봉사에 대해 “남을 돕는다는 자세보다는 내 직업 소명을 다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의료봉사가 필요한 곳이 많고, 그런 곳을 찾아가 봉사를 하면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 천직을 이어가면서 열심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 환자스토리



### 본원에서 틀니 장착하고 C형간염 치료한 김태랑 환자

#### “자활 활동 열심히 해서 무릎 수술비 마련해야지요”



“요셉의원을 알지 못했으면 간염 때문에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거나, 병상에 누워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지요.”

서울에서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집안도 가난한데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중학교를 중퇴하고 15세 때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처음 왕십리 종합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스웨터 짜는 기술을 배웠으나, ‘적성에 안 맞아’ 뛰쳐나온 뒤 혼자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며 ‘반 건달’ 노릇을 했다.

군 징집 연령이 돼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학력 미달로 징집 면제가 됐다. 예전에는 흔히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들을 했다. 김 씨 역시 군에 가서 ‘고생’을 했더라면 삶의 궤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는 20대 초중반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라며 입을 닫았다. 술 먹고 실수를 해서 20대 때 끊었다는 말과 함께. 그러다 20대 후반에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구로동 쪽으로 가서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구로동 일대에서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했어요.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질통에 벽돌을 짊어지고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꾸려가기가 녹록찮다보니 부모 형제와도 연락이 끊겨 부친 사망 사실도 몰랐다. 또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해볼 여력도 없었다.

그런데 점차 60대에 가까워지면서 쪼그려 앉기도 힘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불편해졌다. 3년 전 동부시립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원 정형외과 봉사의도 인공관절을 할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주변에서는 몸이 그러니 정부 수급이라도 받아보라고 하는데, 너무 한심한 것 같아서 통증이 좀 가시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주선하는 ‘자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볼 계획인 그는 로또 같은 것은 사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내게 떨어질 복이 있겠냐 싶어 복권도 사지 않는다”며, 주름진 얼굴에 씩씩한 미소를 머금었다.+

## 후원의 손길



## 10년째 월 10만 원씩 후원하는 영국인 랫나팔란 교수 부부

## “기부는 하느님이 기부하는 이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연세대 'L. 마이클 랫나팔란' 역사학 교수는 한국인 아내 프란체스카 씨(세레명)와 함께 10년 전부터 매월 10만원 씩 꾸준히 본원에 기부를 해오고 있는 장기 후원자다. 이들 부부는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본원 외에도 몇 곳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부인 프란체스카 씨는 “뭔가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선우 경식 선생님이 평신도로서 어려운 노숙인들을 도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남편 랫나팔란 교수는 “어릴 때는 정치적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커서는 한 때 실업도 겪으며 삶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의원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다른 단체나 외국에까지 나누시는 모습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랫나팔란 교수는 스리랑카 태생으로 법조인인 부모가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으로 망명해 5세 때 영국 런던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부인 프란체스카 씨와는 취미로 고전 희랍어를 같이 배우다 알게 돼 결혼으로 이어졌다. 프란체스카 씨는 “저는 호메로스를 원전으로 읽고, 남편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사상을 읽어보겠다는 야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까막눈이 되어 ‘읽은 것은 문자요, 남은 것은 사람’이라며 웃었다.

힌두교도였던 남편은 가톨릭으로 개종했

다. ‘결혼 때문이 아니라 지적인 탐색의 결과’였다. 랫나팔란 교수는 최근 소설 ‘보물섬’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종교성에 관한 저서를 영국 에든버러대 출판부에서 펴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의 초청으로 새로운 저서도 계획 중인데, 구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존 헨리 뉴먼 추기경에 관한 저서다.

랫나팔란 교수는 “뉴먼 추기경은 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증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침 선우 선생님도 평신도로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이런 저런 일을 겪어오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부는 우리에게 하루 하루의 삶과 일자리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기부처를 허락해주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밝혔다.

부인 프란체스카 씨에 따르면, 그의 기부에 대한 생각은 친정 부모(신 안토니오, 권 루시아)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박봉에도 주위의 안타까운 분들을 최선을 다해 도우셨고, ‘주는 이와 받는 이 사이에 간극이란 건 없다’며, 모두 동등한 형제로서 사람을 어떻게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어머니는 이런 분들을 흔쾌히 대접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려 하셨습니다.”

프란체스카 씨는, 남의 어려운 사연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3년 2월~3월)

- 강규빈 ● 강동형 ● 강민아 ● 고철호 ● 공찬웅 ● 광민석 ● 광현희 ● 구본남 ● 구영모 ● 권문경 ● 기하늘 ● 김귀진 ● 김남일 ● 김두철 ● 김로아 ● 김명희 ● 김미숙 ● 김미화 ● 김민승 ● 김보경 ● 김상금 ● 김상미 ● 김상현 ● 김서안 ● 김세영 ● 김아름 ● 김영애 ● 김윤정 ● 김인숙 ● 김점례 ● 김지윤 ● 김진업 ● 김초희 ● 김향이 ● 김현우 ● 김희경 ● 김희숙 ● 김희재 ● 남기룡 ● 남소라 ● 남윤석 ● 남은경 ● 노현영 ● 류도형 ● 박경원 ● 박길희 ● 박노경 ● 박미소 ● 박미희 ● 박순선 ● 박윤경 ● 박주리 ● 박진욱 ● 박창수 ● 배문자 ● 배문주 ● 백임전 ● 백재욱 ● 변호영 ● 서주연 ● 송정우 ● 신성철 ● 신우람 ● 신우진 ● 신태범 ● 신화용 ● 심상민 ● 안미화 ● 안수민 ● 안수현





- 안수호 ● 안승환 ● 안여주 ● 양경화 ● 양규원 ● 양인규 ● 양춘하 ● 오경희
- 오동욱 ● 오영임 ● 우새미 ● 우혜원 ● 유기선 ● 유허미 ● 유현세 ● 윤귀국
- 윤병로 ● 윤보화 ● 윤소영 ● 윤영성 ● 윤종관 ● 이경자 ● 이동민 ● 이명국
- 이미연 ● 이상명 ● 이상숙 ● 이성구 ● 이승준 ● 이시리 ● 이유진 ● 이은태
- 이은형 ● 이인선 ● 이재아 ● 이지연 ● 이판준 ● 박정옥 ● 이한비 ● 이현승
- 이현주 ● 이혜빈 ● 임소리 ● 임소희 ● 임숙희 ● 임연재 ● 임택수 ● 임희라
- 장 재 ● 전수진 ● 정규현 ● 정락원 ● 정순경 ● 정영수 ● 정윤희 ● 정진호
- 정현정 ● 조경숙 ● 조기원 ● 조남진 ● 조문희 ● 조상현 ● 조윤성 ● 주 미
- 채정우 ● 최연지 ● 최영숙 ● 최원순 ● 최지은 ● 최진숙 ● 최청규 ● 최혜라
- 최혜진 ● 추성미 ● 하승철 ● 하진선 ● 한대용 ● 한유리 ● 한해진 ● 허영진
- 황보정 ● 황승현 ● 황인철 ● 황진용 ● 황보태영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3년 2월~3월)

- 디이그제큐티브센터코리아(주) ● 레인보우아트텍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3년 2월~3월)

- 강신걸 · 김선하(피스오브헤브) : 유기농 롤케이크 3상자, 유기농 쿠키 60봉지
- 김 \* 순(광명시) : 미역 1상자 ● 김 \* 의(파주시) : 쌀 10kg ● 김요셉 : 떡 1상자, 요구르트 40개 ● 김유순 : 무 1상자 ● 김은희 : 쌀 10kg ● 송미경 소화데레사 : 배 1상자 ● 익명 : 쌀20kg ● 황산연 라파엘(대방동성당) : 두유 120팩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3년 2월~3월)

- 김 \* 순(광명시) : 옷 1상자 ● 김 \* 의(파주시) : 코트 1벌 ● 김 \* 환(군포시) : 자켓 2벌 ● 김은희 : 의류 1상자, 가방 1개 ● 김채령 : 신발 27켤레, 양말 185족
- 남인애 : 의류 2상자 ● 노 \* 옥 : 옷 2상자 \* 문영애 : 옷 1상자 ● 민수정 : 이불 1채, 수건 외 2상자 ● 박 \* 경(부산) : 의류, 패션잡화 1상자 ● 박민주 : 의류잡화 2상자 ● 서 \* 관(수원시) : 옷 1상자 ● 서 \* 력(파주시) : 옷 1상자 ● 서현숙 : 다운점퍼 1벌 ● 여성아이병원 산부인과 1과(포항시) : 의류 2상자, 다운점퍼 1점, 티셔츠 1점, 신발 3켤레 ● 윤 \* 경 : 옷 2상자 ● 윤 \* 숙(세종시) : 옷 1상자 ● 익명 : 이불 1채 ● 정금옥 : 옷 1상자 ● 한현숙 : 의류 1상자, 신발 4켤레



###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2월~3월)

- 하나제약 : 뉴피오 외 26종, '바보의 나눔'을 통한 3개월치 의약품비 1,000만원 지정 기탁



###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2월~3월)

- 민수정 : 전자레인지 1대 ● 배강보 : 마스크94 64매 ● 배관랜드(정종재 프란치스코) : 마스크94 1000매, 샴푸 2상자 ● 이소연 로사 : 수세미 1상자 ● 익명 : TV모니터 1대, 그릇류 2상자 ● (주)비비안 : 마스크94 500매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노호균(외과)  
이동욱(재활의학과)  
이동주(정형외과)  
최삼욱(정신과)
- 약사 : 소정우, 류선희(봉사 복귀)
- 간호사 : 이석희
- 방사선사 : 정규현
- 임상병리사 : 부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봉사 재개)
- 신학생 현장체험  
김정수 그레고리오  
(안동교구, 3월 2일~6월 29일)
- 일반봉사  
김기숙 남경민 이은지 이은주 임민정

###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 암사루
- 천주섭리 나눔의 집
- 토마스의 집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3년 2월	1,248 명
2023년 3월	1,370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3년 3월 말 현재)

**734,487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2~4.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김다슬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 외부 의료봉사 재개해 4월에만 4회 참여

코로나로 중단했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필리핀요셉의원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외부 의료 봉사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본원은 지난 4월에만 4회의 외부 의료 봉사를 기획하고 참여했다. 4월 12일에는 따가 이따이라는 지역으로 찾아가 은퇴 사제 및 수도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



### 복음 묵상

## ‘고통을 넘어 다시 한번 시작하기’

고통을 넘어서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픔을 넘어서면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대로 분명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신학생 때 서품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신학생 생활 10년을 서품을 보고 달려온 듯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제 되기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사제가 되는 그 순간을 더욱 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어 보니 지난 10년은 준비 기간이었을 뿐이고 성소는 사제가 되는 그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있었습니다. 사제서품으로 저의 성소는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 오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에 잘 자리잡고 있어서 병을 묵혔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도착한 것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

다. 단순히 병을 앓고 있는 것에서 이제 치료라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을 기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모든 것의 끝이고 죽음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한 11, 25) 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사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현재의 사건으로



했다. 현지 교구내 본당과도 활발한 협업을 펼쳐, 4월 15일에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본당에서 열린 의료 봉사에 의약품을 지원하고, 요셉의원 의료진들이 함께 환자를 진료했다. 이어 4월 23, 24일 양일간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인 홀리안 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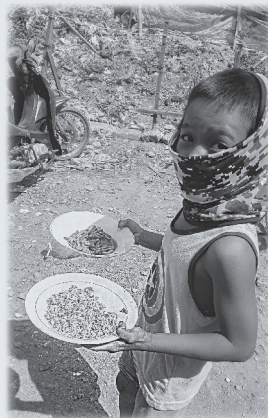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은퇴 사제 및 수도자 방문 진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본당에서 열린 의료봉사, 상근봉사자인 에블린 박사의 진료 모습.



페 미션 스테이션과 말라본 교도소에서 가난한 이들과 재소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환자들을 진료했다. 특히 4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사흘간은 한국에서 온 열린의사회 봉사진과 함께 현지 본당 두 곳을 방문해 내과, 외과, 치과 진료를 하고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로 체험합니다.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신앙 안의 매 순간이 죽음과 부활의 순간이 됩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희망이 의미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요셉의원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치료가 시작되면 겪게 되는 치유의 고통과, 치료비를 충분히 충당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 치료 절차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어 그냥 적당한 치료에 만족하고 치료를 마치지 않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비록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 부활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는 부활의 희망 속에서도 매일



죽음을 체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결코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픔을 넘어서면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대로 분명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끊임 없는 고통 안에서도 그것이 유한한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한다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나 그 결과는 찬란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에게 축하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 진료과 늘어나며 의료기기 보수 및 구입 추진

### 10년 이상 된 낡은 의료기기 많아 교체 예정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진료를 재개한 뒤 본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확보가 가능한 진료과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소아과와 내과 진료만 실시하다 현재는 마닐라 중앙대병원(MCU)과 협력해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까지 진료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

기기를 점검하고 노후화된 것은 폐기한 뒤 새 기기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본원에서는 이를 위해 MCU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해 의료기기를 점검하고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쓰는 장비는 10년 전 개원 때 중고 기기를 일부 지원받은 것도 있어 최근에 새로 구입한 장비 이외에는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 예로 내과나 외과에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X선 장비의 경우 필름으로 촬영하는 오래된 것이어서 얼마 전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필름 현상 방법을 알고 있는 이도 적을뿐더러, 필름이나 현상액도 별도 구매해야 하는 등 비용과 번거로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는 디지털 X선 장비를 구입해 나중에 의료영상전송시스템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기기 보수 및 구입

추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형 X선 촬영 필름을 봉사자들이 드라이어로 말리고 있는 모습(사진 위). 사진 왼쪽은 전 기소작기와 심전도 검사기.

#### + 2023년 2월 ~ 3월 신규 후원회원 (32명)

- 고진영 ● 김복자 ● 김선훈 ● 김아네스 ● 김영순
- 김정화 ● 남기순 ● 노호균 ● 문금석 ● 박성준 ● 배중균
- 백승익 ● 송재욱 ● 약수도우미 ● 오순임 ● 요셉의원-필-후원 ● 윤소영 ● 이경자1 ● 이경자2 ● 이봉석 ● 이석희
- 이원재 ● 이윤희 ● 이정현 ● 이현진 ● 임난희 ● 장희수
- 정성심 ● 최창학 ● 크리스티나 스테파니아 ● 황귀남
- 황애현

#### + 2023년 2월 ~ 3월 신규 후원단체

- (주)에이치앤코퍼레이션 ● (유)한일상사 이봉준

#### + 2023년 2월 ~ 3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1,166명 ● 급식 10,170명

####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3년 3월 현재)

- 진료 91,324명 ● 급식 470,286명

####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3.2~3.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 남아메리카 브라질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이윤주 아나스타시아 수녀가 보내온 사연

### “성경 공부도 읽고 쓰기보다 말하고 듣기에 더 익숙” 브라질 빈민 공동체 어린이들 이야기



사진 왼쪽은 교리시간에 모인 학생들. 오른쪽은 학생들의 십자가 행렬. 아래 사진은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어느 주말 아침, 아이들이 손에 종이 한 장씩을 들고 경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저는 그림 대신 만들기 할래요. 친구랑 같이 해도 되나요?” 저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모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문맹률이 매우 높고, 학교를 다녔어도 글을 잘 읽고 쓰기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 빈민지역 공동체 사람들은 전례 독서나 성경 공부도 읽고 쓰기보다는 말하고 듣기에 더

익숙합니다. 물론 요즘은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익숙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읽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 누가 책을 읽어요?” 문맹임이 너무도 당연한 아이들의 반문에 웃음이 납니다.

사순 기간을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그 내용을 그림과 만들기 와 연극을 통해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4처의 내용을 그리고 색깔을 입히는 아이들, 버려진 나무토막을 주워다 돌맹이로 못을 쳐 십자가를 만드는 아이들, 그 위에 매직펜으로 INRI라고 서투르게 적는 아이들, 마을을 도는 십자가 행렬에 참여하여 어른들과 함께 큰 소리로 기도를 바치는 아이들,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순간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며 바닥에 눕는 아이들... 아이들

이윤주 수녀님에 대한 지원 : 지난 2019년 3월 15일 브라질 현지 신자와 스페인어권 난민 신자를 위한 포르투갈어 성경 100권, 스페인어 성경 10권, 포르투갈어 어린이 성경 30권, DVD 성경자료, 문해교육 교재 및 학용품, 교육공간 설비 지원금 미화 3,940달러(한화 약 370만원, 이중 700달러는 국성회 외환통장에서 인출) 후원.

이 마치 내 자식들인 양 코끝이 찡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과 가난의 절망 속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이곳 아이들은 해맑고 자유롭습니다. 책에 적힌 예수님 이야기를 글로 읽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가진 다양한 재능으로 예수님의 삶을 듣고, 배우고, 체험합니다.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남아 아이들의 가슴에 남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기도를 바칩니다.  
(메리놀 수녀회 이윤주 아나스타시아 수녀) ✦



▶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박은경 아녜스 수녀가 보내온 편지

“하느님이십니다!” (창세 45,8)

독서로만 들던 성경말씀  
책으로 공부해요



창세기 그룹공부에서 참석자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페루에 두 번째로 파견되어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리아 공소’에 도착한 때는 2021년 3월이었다. 코로나 시절이어서 우리를 기다리던 젊은이들 몇 명을 만났을 뿐 다른 신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물론 주일미사도 없었다.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끔 동네 시장에 가도 주민들과 목례를 나눌 뿐 말을 걸 수도 없었다. 그래도 두 번째 선교여서 크게 두렵지는 않았는데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지는 침묵 생활에서 생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오후가 되면 공소에 오시는 신자들 몇 분과 함께 성모님 앞에서 코로나 종식과 대면 미사를 바라는 묵주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두 달 뒤인 5월에 토요일 저녁 7시 미사가 재개되었다. 같은 달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왔다. 저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교포 신자들이 어렵게 모금한 후원금이 도착했다. 가난한 동네 주민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그분들의 바램을 본당

사제와 협력자들을 통해 페루 정부가 수행하는 ‘공동밥집 프로그램’과 연계해 준비된 양곡류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있는 듯한 흥분과 감동을 맛보았다. 우리가 나누는 양곡들이 공동밥집 식구들의 겨우 1주일분 양식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 자비를 계속 베풀고 계심을 알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양식뿐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견된 후배 수녀님은 공소 청년들과 이미 창세기 그룹 공부를 하고 있었다. 수녀님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나도 레지오 어르신 4명과 창세기 그룹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1년 넘게 여정을 걸어왔고 다음 주면 어느 새 마치게 된다.

첫 모임에는 주임 신부님의 입문 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후배 수녀님의 그룹공부 안내강의,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 자매들과 성경말씀을 천천히 읽고, 쓰고, 숙고하고, 묵상을 나누었다. 그룹 공부를 하는 자매들은 무척 행복해했다. “미사시간에 독서로 듣기는 하지만 이렇게 창세기 내용을 직접 소리 내어 읽고 필사하는 것이 처음”이라며 감사해했다. 처음에는 눈물 흘리며 자신들의 인생 다투리로 시작한 성경 공부가 이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느님의 섭리와 자비, 무한하신 사랑을 음미한다.

페루 선교사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만 2년, 지금 제일 많이 시간을 내는 일은 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임무가 계속 이어져갈 것이다. 스페인어





는 너무 부족하지만 자매님들의 인생사를 조금씩 알아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늘어가고 있음에 감사한다. 자매님들은 가난하지만 자신보다도 가족을 더 배려하고,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온갖 신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성경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가끔 가정방문을 가면 식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고 나름 성서그룹 공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창세기 마지막과 주제인 “하느님이십니다!”(창세 45, 8)”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이

스라엘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 40 가까운 나이에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 화해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루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듯이, 나도 고백한다. 선교지 언어로 자매들과 성경공부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선과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딸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박은경 아녜스 수녀) +

☞ 박은경 수녀님에 대한 지원 : 2021년 6월 10일에 페루 청년 신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성경 100권(149만 원)을 후원.

##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3년 2월~3월)

- 고현수 ● 김금재 ● 김명숙 ● 김명희 ● 김범준 ● 김병희 ● 김성권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애 ● 김진우 ● 김현숙 ● 나삼균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연빈 ● 박종대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미순 ● 이상숙 ● 이상현 ● 이용애 ● 이은행 ● 이장수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환 ● 이지현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현규 ● 이혜순 ● 이희자 ● 임한미 ● 장선화 ● 장을숙 ● 전대영 ● 정재숙 ● 조용덕 ● 조하영 ● 조현순 ● 진석실업 ● 최두혁 ● 최명옥 ● 최원남 ● 하금태 ● 허 근 ● 허준영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태운

###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3년 2월~3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우준 ● 박준병 ● 백성호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이철희 ● 임상무 ● 정순택 ● 조성풍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익명후원자

### + 신규 후원회원 - 일반 (2023년 2월~3월)

- 김덕순 ● 박양우 ● 양윤애

■ 2023년 2월~3월 후원금 내역 : 21,299,000 원

## + 국성회 후원 방법

###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 2023년 5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 토빗기 4, 7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5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요셉의원 후원 방법

###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http://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mailto: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mailto:info@josephclinic.org)



##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 영화상영

시간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아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 단주모임 (A.A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알코올의존증 상담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